ESG, 지속가능한여행

서울신학대학교
담당교수 : 송기현

* 본 교과목은 '사회적가치연구원(www.cses.re.kr)의 2022년 사회적가치 강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소정의 강의개발비를 지원받은 과목입니다.

ESG,
지속가능한여행 7주차

서울신학대학교
담당교수 : 송기현

* 본 교과목은 '사회적가치연구원(www.cses.re.kr)의 2022년 사회적가치 강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소정의 강의개발비를 지원받은 과목입니다.

ESG경영 여행 관광산업에 도입

- ESG 관광시대의 시작 -> 친환경 여행의 푯방
-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는 관광산업에서 발생
- 교통편, 현지에서 소비하는 물품 외에도 탄소를 발생시켜 지역사회의 자연이나 환경 오염
- 2021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6개의 민간 유관협회와 공동 실천 선언식
-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친환경 관광의 적기'
- 여행자들은 자신들만의 가치관을 중점으로 여행
- MZ 세대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재해석한 체험상품의 수요 증가
- 플로깅 유행 : 환경적 가치를 중시
- 웰니스여행, 촌캉스 유행

△탄소배출저감,

△생물다양성 및 자연경관 보존, 친환경 여행 문화 조성 등 '환경보존 노력'

△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안전한 여행 환경조성, 고객정보 보호강화등 안심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및 고객보안 강화'

△ 협력사 공정 대우, 양질의 일자리 및 근로 환경 조성, 지역사회 공헌 활동 강화 등 관광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상생 및 윤리경영'

ESG경영 여행 관광산업에 도입

△ G는 윤리규정 제정 및 준수

△ 여행업, 숙박업, 카지노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캠핑장업 별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

△ 일회용 어메니티 용기 다회용으로 교체

△ 에코백, 텀블러 등 친환경 기념품 제공

△ 버려진 페트병 등 업사이클 제품 활용

△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캠핑문화 조성

➔ 인천관광공사는 2022년 '내가 그린(GREEN)인천여행'으로 친환경 여행문화 확신과 '인천 친환경 교육여행 ' 을 통해 관광지 체험비용을 할인해 주는 '착한여행 실천' 시도

친환경 여행 사례

송기현

플라스틱 없는 제주 만든다.

-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실현을 위해 친환경 여행문화 캠페인을 시범지역인 우도에서 이어진다.
- 관광객들이 휴대전화 QR을 촬영하는 방식
- 친환경 여행 디지털 서약 작성
- 다회용컵도 8613개를 사용하여 반납률 94.1%를 기록
- 한국관광공사의 친환경 여행지 선정

순천에서 제로웨이스트 여행

- 2022년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 : 장기 체류여행 프로젝트 = 제로웨이스트 여행 in 순천
- 장기간 체류하면서 전남 구석구석 여행지를 직접 체험, 다회용기 사용 등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 ‘지구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소비’ 콘셉
-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의 이미지

플로깅의 발상지 스웨델 스톡홀름

-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실현을 위해 친환경 여행문화 캠페인을 시범지역인 우도에서 이어진다.
- 관광객들이 휴대전화 QR을 촬영하는 방식
- 친환경 여행 디지털 서약 작성
- 다회용컵도 8613개를 사용하여 반납률 94.1%를 기록
- 한국관광공사의 친환경 여행지 선정

순천에서 제로웨이스트 여행

- 2022년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 : 장기 체류여행 프로젝트 = 제로웨이스트 여행 in 순천
- 장기간 체류하면서 전남 구석구석 여행지를 직접 체험, 다회용기 사용 등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 ‘지구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소비’ 콘셉
-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의 이미지

플로깅의 발상지 스웨델 스톡홀름

- 플로깅을 스웨덴어로 '플로카 업(plocka upp, 줍다)과 ' 조가(jogga, 조깅)의 합성어이다.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플로깅은 스웨덴에서 시작되었다. 유럽에서 가장 친환경적 도시 중 하나인 스톨홀롬은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수돗물을 자랑하는 이곳은 다른 유럽지역과 다르게 생수를 구매할 필요가 없는 도시이다.
- 또한 재생에너지가 사용될 뿐만 아니라 도시 내 고체 폐기물의 99%는 재활용되고 있다. 도보 거리 이내에 여러 명소가 위치해 있고,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시에서 제공하는 1000대 이상의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여행할 수도 있다.

환경보호를 위해 한 걸음씩 필리핀 보라카이

- 교통수단은 전기 세발자전거, 주요 에너지원은 깨끗한 환경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곳, 필리핀에서 보라카이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취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
- 특히 화이트 비치의 '라 카반 하우스 앳 보라카이 ' 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만전을 가하고 있으며, 일회용 플라스틸 사용을 금지하며 섬의 미래를 보호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

산호초 보호, 최선을 다하는 호주 시드니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 이곳은 2300km 에 달하는 해안을 따라 거대한 산호초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산호초 400여종, 어류 1500여종, 연체동물 4000여 종, 멸종위기 초록거북 등 지구 생태계의 진화, 지질학적 과정 및 연구대상으로 다양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이 아름다운 곳이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생긴 백화현상으로 인해 1995년 이후 총 면적의 약 절반 가량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에 위기를 느낀 호주 당국은 산호초보호를 위해 각종 까다로운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곳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환경관리비를 부과하는 것, 또 생태관광 인증을 받은 관광업체에게만 상업적 운영을 허가하고 있다.

- 이 밖에 레이디 엘리엇 섬의 리조트에는 플라스틱 물병을 절대 반입할 수 없다.

탄소중립 실천 여행지 – 국립산림치유원

- 한국산림족비진흥원 소속 기관인 경북 영주의 '국립산림치유원 ' 은 지속가능경영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산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국가정책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 산림치유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구를 그린(green)그림 원화를 출판사와 연계해 전시하는가 하면 △폐현수막을 활용한 양심가방 제작 △판타스틱 숲속 문화체험인 '산림별곡 ' 등 문화와 예술, 그리고 공연을 아우르는 각종 캠페인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탄소 저감 실천을 위해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환경부 인증을 통해서 탄소중립 숲 교육 제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친환경 가치확산 여행지 – 하동 탄소없는 마을

- 칠불사와 서산대사길 등 곳곳에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마을, 그리고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으로 유명한 하동의 탄소없는 마을. 자연을 잘 지키면서 여행객들에게 힐링과 치유를 선사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하여 경남 대표 생태관광지로 손꼽힌다.
- 탄소없는 마을로 지정된 11곳에서는 주민 스스로가 환경 지킴이가 되어 신재생 에너지 자립마을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화개면 콕통 의신마을에는 소수력과 태양광, 소형풍력 등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구축, 주민소득으로 연간 1억2천여만원을 창출하고 있다.
- 탄소없는 마을 주민들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탄소없는 마을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한편, 주민 스스로 환경의 가치가 최고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물과 전기 절약, 쓰레기 절감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친환경 생태탐사 여행지 =예산 황새공원

- '항새가 살아야 사람도 산다 ' 는 신념으로 주민들이 똘똘 뭉친 곳, 그래서 항새 복원 관련 각종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황새 서식지 조성을 위한 생태계 보존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예산 황새공원', 황새공원이 위치한 광시면 대리 지역 마을 전체는 황새가 스스로 야생에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일반 농법에 비해 두 배 이상 어려운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활새공원은 5년 연속 자연번식에 성공했고, 공원 주변에는 야생속에서 생활하는 황새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황새공원 주변 논에는 금개구리와 물방개 등 다양한 멸종위기 생물들이 식하는 생태마을로 주목받기도 한다.

- 이맊에 마을 주민들은 곳곳에 생태습지인 '둠벙(전통의 생태연못으로 논 근처에 움푹 꺼진 작은 물 웅덩이')을 조성하여 수생생물의 종류와 개체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 수생생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어도를 조성하여 다양한 생물드리 어우러지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지역상생 여행

송기현

베트남 하노이의 '사파 시스터즈 트레킹 어드벤처'

- '사파 시스터즈 ' 는 하노이 북쪽에 위치한 고원지대인 사파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여성이다.
- 이들은 트레킹 여행자의 안내를 맡아 '사파 시스터즈 트레킹 어드벤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행 가이드이다. 여행자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그 지역 여성들의 안내로 고원의 계단식 논을 걸으며 여행을 할 수 있다. 여행자들은 사파 지역 현지인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고 지역 상품의 구매와 관광비용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여행자들은 현지인인 사파 시스터즈를 보며 사파의 진솔한 모습을 발견, 더욱 의미있고 친밀한 여행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여행은 거대한 리조트를 지어 여행객들이 외부 여행사의 돈벌이로 전락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 투어를 통해 숨겨진 명소를 볼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는 현지인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세계 각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숨바 호스피탈리티 재단의 프로젝트’

- 숨바 섬은 인도네시아 1만8000여 개의 섬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섬이었다. 문명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에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야생의 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지금은 천혜의 자연이 인간과 공존하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세계 최고의 호텔이 있는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숨바 호스피탈리티 재단의 노력과 주민 호응 덕분이었다. 숨바 호스피탈리티 재단은 척박한 사바나에서 살아가는 숨바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2016년 설립되었다. 재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과 자연, 여행자와 주민의 공생 실현으로, 그래서 등장한 것이 교육과 관광을 연계하는 것이었다. 재단 산하 호텔학교에서는 지역 청년들에게 기숙사·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호텔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인턴십을 경험한 후 숨바 섬의 호스트가 되어 여행객에게 인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숨바 호스피탈리티 재단의 프로젝트’

- 그런가 하면 퍼머컬처(지속가능한 농업, 의존적 소비자에서 책임감 있는 생산자로의 변모) 원칙에 기반하여 생산된 농작물들은 호텔학교와 레스토랑, 리조트에 제공된다. 숨바의 관광 관련 종사자 90%는 지역 주민들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모두 주민들이 만든 것인데 커피, 초콜릿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을 자체 생산한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숨바 섬의 시설을 이용하고 물품들을 소비하면서 저절로 숨바 섬에 기부를 하게 된다.

  결국 이 물건들을 판매한 수익은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재단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익을 기부금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후쿠오카의 ‘제주 올레를 벤치마킹한 규슈의 성공’

- 일본 규슈 한 지자체가 제주 올레를 벤치마킹, ‘규슈 올레’를 조성하여 친환경적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데 성공하였다. 규슈 올레는 관광객들이 올레 주변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지역주민을 만나고, 지역 특산품을 소비하며, 자연과 삶의 터전을 온전히 둘러볼 수 있게 하였다.

  규슈 올레의 모든 길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모든 코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혼자서도 걸을 수 있고, 시작점과 끝 지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올레 중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중도 이탈 지점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경로를 바꾸기 쉽게 하였다. 또한 코스를 조성할 때 되도록 아스팔트 거리를 피하고 주로 오솔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했으며, 걸어야만 볼 수 있는 자연경관·볼거리를 포함시키고, 각 코스 별로 특별한 테마나 스토리를 입혔다. 여기에 지역민들이 직접 만든 친환경 특산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소비활동을 자연보호 활동으로 연계하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의 ‘제주 올레를 벤치마킹한 규슈의 성공’

- 사가현 서쪽의 작고 조용한 온천마을 다케오에는 일본 최초 올레인 ‘다케오 올레’ 코스가 있다. 이 코스는 민관 협력의 좋은 본보기로 통한다.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함께 올레를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적용하여 활기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케오 올레’는 민관이 협력, 지역의 경제·사회적 활성화를 일궈낸 상생과 공존의 결과물이자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현’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라이프 ‘평창 와우미탄(WOW:미탄)’

청옥산 육백마지기의 차갑고 시원한 바람(W), 고향을 지키는 청년들의 젊음(O), 시원스럽게 흐르는 맑은 동강(W)이라는 의미가 담겼다는 ‘WOW’. 강원 평창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여행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곳 ‘WOW:미탄’.

WOW:미탄은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과 평창군 미탄면의 발전을 추구하는 청년 농부들의 노력으로 개발된 곳이다. 맑고 시원한 미탄면의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관광객은 평창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으며, 여기에 이국적 디자인의 구조물이 더해져 ‘한국의 스위스’ 또는 ‘한국의 알프스’로도 불리고 있다.

흑염소를 방목하는 ‘산너미목장’에서는 차박 캠핑과 육십마지기 트래킹을 즐길 수 있고, ‘어름치마을’에서는 동강 래프팅과 함께 백룡동굴탐사와 슬로우보트 등을, ‘청옥산농원’에서는 은행나무숲 체험 등 종합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다. 청년 농부들은 관광객들이 미탄면에 머물면서 연계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한 마을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화의 소리, 상생의 소리 ‘파주 평화오르골’

- 대한민국 대표 DMZ 관광지 파주. 이곳의 특성을 살려 탄생한 관광두레가 평화오르골이다. 분단 접경지역인 만큼 평화의 마음을 담아 파주의 문화 예술인과 지역민들이 의기투합, 개발한 관광 상품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평화오르골 체험과 갈등의 숲 체험이 있다. 평화오르골 체험에서는 녹슨 지뢰를 닮은 원통에 장총과 철모를 세운 모습을 형상화 한 지뢰오르골을 만들 수 있다. 도자기, 나무,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하며 추억을 새길 수 있다. 갈등의 숲 체험에서는 덜컹거리는 트랙터에 탑승해 마을 뒤편 연평산 숲을 돌며 각종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지역민들은 분단 접경지역의 아픔을 삭이고 평화의 마음을 담아서 관광 상품을 개발·제공하고, 관광객들은 분단의 현실에 대해 고통받지 않고 충분한 힐링과 휴식을 취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요리하고, 먹고, 농사 체험까지 '진주 밀알영농조합'

- 우리나라 유일의 '토종 밀'인 진주 앉은뱅이밀. 예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앉은뱅이밀을 재배하였으나, 1980년대 수입 밀이 물밀 듯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대중으로부터 멀어졌다. 키가 50~70cm로 작은 편이어서 앉은뱅이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색이 붉고 병충해에 강하며, 입자가 작고 부드러우면서 단맛과 특유의 향이 있다.

  밀알영농조합에서는 앉은뱅이밀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밀알영농조합에서는 토종 방식으로 밀을 재배하는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밀을 생산한다. 또한 밀가루, 국수, 빵, 과자 등 다양한 우리밀 식품과 밀키트를 개발·판매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이 앉은뱅이밀로 요리하고, 먹고, 농사 체험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수확과 타작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으며,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추억의 밀서리'도 체험할 수 있다. 밀 수확 시기인 6월이면 밀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체험거리로 인하여 밀알영농조합은 지역발전과 도농교류에 앞장서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아픔 보듬어 주세요”

한국관광공사는 산불로 피해를 본 삼척, 동해, 강릉 등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삼척 핫플 찾기!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벤트’, ‘KTX타고 강릉-동해 착한 기부’, ‘강릉 스포츠케이션 & ESG관광상품 신규 개발 판촉’, ‘강원관광도로 ‘네이처로드 연계’ 숲 드라이빙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강원 ESG 가치여행 캠페인’을 진행, 여행업계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산불 피해에 기부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공사의 SNS 기자단도 자원봉사여행을 통한 지역 홍보와 기부형 ESG 여행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울진을 대상으로는 울진군을 비롯해 여행업계 등과 협업,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촉진을 위한 ‘힘내라 울진’ 특별 여행상품전을 추진하였다. 또한 금강송 숲캉스 웰니스상품 개발 및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상품권 증정 등의 이벤트도 열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아픔 보듬어 주세요”

특히 ‘힘내라 울진’은 국내여행 전문업체 ‘승우여행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나섰다. 상품은 ‘당일’과 ‘1박2일’ 여행코스. 왕복 교통비와 식사값, 관광지 입장료 등과 함께 당일은 2만 원, 1박2일은 3만 원의 기부금을 포함하여 상품을 구성하였다. 이어 특산품 매장 방문, 시장에서 식사하기 등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ESG가치여행은 큰 효과를 발휘하였다. 특히 동해시의 경우 당초 500명의 여행객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542명이 방문하는 등 여행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관내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모처럼 만에 활기를 띠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 단단히 하였다는 평가다.

‘지역과 더불어’ 여행하며 상생하는 ‘공정관광’

- ESG가치여행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부분에 기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지역을 찾는 여행객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제주도의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나 서울 북촌 한옥마을 등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보면 특정 부분에서 문제성도 도드라진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의 낙후되었던 환경이 변화하면서 임대료 등이 상승해 이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밀리 듯 내몰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 **‘상생’개념의 재정립**
- **관광객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 **‘자연친화적 유지 ' 부탄의 사례**

거버넌스 여행

송기현

자원봉사와 여행의 융합 ‘미국 플로리다주 관광공사’

플로리다 주정부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9년 플로리다주 관광공사 홈페이지 ‘비지트플로리다’에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명소를 알리고, 그곳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친환경 관광 안내 페이지를 만들었다. 또 친환경적 교통수단과 친환경 숙박 프로그램, 플로리다에 머무는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플로리다주 관광공사는 2020~2021년 MZ세대를 주요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볼룬투어리즘’을 실시하였다. 자원봉사를 의미하는 ‘볼룬티어’와 관광을 의미하는 ‘투어리즘’을 합성한 단어인 볼룬투어리즘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행하는 것을 뜻한다. MZ세대에게 자원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의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형적인 관광 경험을 벗어난 새로운 관광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처럼 플로리다 주정부는 친환경 관광 허브를 마련하는 한편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면서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소유보다는 공유를 중요시하는 MZ세대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한 관광마케팅 전략을 실천함으로써 자연보존과 관광산업 진흥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잡는 데 성공하였다.

절제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확보 ‘필리핀 바타네스 지역’

총 면적 약230㎢(약 7만평)에 2020년 기준 인구 1만8831명이지만 필리핀 81개 주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바타네스. 문명과 멀리 떨어져 있어 전자제품이 없는 곳이다. 정식 명칭은 바탄 제도로 1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잇바야 섬에 거주하는 이바탄 족은 잦은 태풍과 싸워야하는 바타네스의 특이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았다.

바타네스의 자연생태계와 이바탄 족의 고유문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정부는 이곳에 관광객의 발길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편을 최소한으로 운항하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주민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호스텔과 여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바타네스를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토착문화 공동체가 문화적 전통과 제도를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타네스 책임 관광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기반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평등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책임있고 참여적이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관광이 되도록 이바탄의 관광산업을 촉진하였다. 필리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소중한 자연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위하여 절제를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자력갱생 도모 ‘중국의 소수민족 특화 마을 보호 및 개발’

중국은 56개 이상의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대부분 변방의 낙후된 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문화적 전통마저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중국은 2009년부터 ‘소수민족 특화 마을 보호 및 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12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40여 개의 식별되지 않은 민족들이 모여 있는 광시성. 이들 소수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시성 자치구는 10년 동안 소수민족 특화 마을을 육성·건설하였는데, 그 결과 그들만의 자원을 이용한 농업이나 문화 관광업이 개발되면서 발전을 거듭, 소득이 증대되고 빈곤에서 빠르게 벗어났다. 푸젠성 취안저우시 시위춘의 경우 2020년 특화 마을로 지정된 후 바다 실크로드의 역사문화유산과 석호를 보호·발전시키고, 마을 사람들의 전폭적 지지 하에 도로, 공중화장실, 가로등 등 환경 개선도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특히 녹색정원 등 생태 환경까지 조성되었다.

소수민족을 어떻게 보호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그렇게 보호 발전된 소수민족들의 공존과 호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또 분배의 정의와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데 실제 성과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소수민족 특화 마을 보호 및 개발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